국내 지로팩용기 생산의 역사

ISO 9002인증 획득 · 확장이전계획

포장산업계는 크고 작은 규모의 업체 구분이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다.

고정거래처와 우수한 재무구조 최신의 설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단 한대의 설비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도산하거나 또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들이 나타나는 등의 반복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굳이 꼽자면 포장산업계의 제품자체 단가가 낮은데다 모든 원부자재, 완제품의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포장재가격은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도 큰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

이러한 업계의 특성상 오랜동안 업계를 지켜간다는 것은 독특한 품목이나 기술, 업체간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대원산업(주)(대표이사 박종현)은 눈에 띄는 사업확장을 통한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해온 업체로 알려져 있다.

현재 5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시 북구 작전동 공장에는 관리직 사원의 수가 예상외로 적어 보였다.

최소한의 관리직 사원으로 운영하며 오로지 제품생산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대원산업의 또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인천시 북부 작전동 위치한 대원산업(주) 전경

◀ 지난 2월 창립 29주년 기념식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종현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29주년을 맞은 대원산업은 경영자 2세인 박종현 대표이사가 지난 2월 창립기념일 행사와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대원산업을 설립, 지금까지 이끌어 오며 모범적인 경영을 펼친 박기붕 회장은 71년 홍국정수화학공업사를 설립, 대원화학공업사, 대원프라스틱공업(주)로 변경하고 지난 88년 대원산업(주)로 지금의 상호를 갖게 됐다.

1970년 막걸리병과 농약병 등의 마개용으로 사용되는 소위 '루깽'이라 불리는 제품생산의 메카였던 대원산업은 이 분야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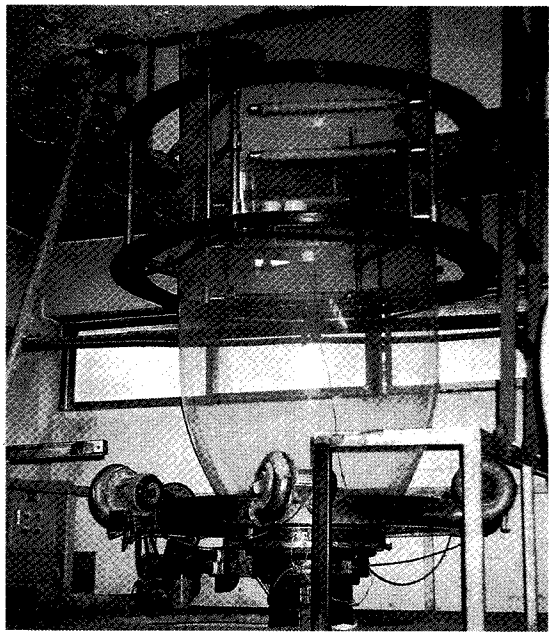
또한 우유용기로 사용되는 '지로팩'의 국내 수요를 독점 생산해 오고있는 대원산업은 초창기부터 서울우유에 삼각과 사각 지로팩용기를 납품했으며 이외에도 연세우유, 남양유업으로도 지로팩을 공급해 오다 카톤팩의 등장과 함께 시장이 잠식되는 현상이 나타나 고전을 겪기도 했다.

20여년간 대원산업에서 일해온 황병영이사는 "현재 우유용기로는 카톤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로팩은 인체위해성이 없고 종이보다 단가가 저렴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플라스틱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대원의 주 생산품인 PE필름은 자가사용외에도 많은 양을 인쇄 및 가공업체에 각종 식품포장용, 농약포장재, 종묘봉투용 등으로 납품되고 있다.

또한 NYLON, EVA, EMA, SURLYN 등의 원료로 생산되는 다층 공압출필름은 주로 차단성을 요구하는 식품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제품이니 만큼 생산과정이나 원료선택에 있어 특별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품목이다.

대원산업의 생산부는 압출부, 인쇄부, 합지부, 가공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기 연결과정에서



▲ 대원산업(주)의 블로운 필름 생산라인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 지고 있고 장기근속사원이 많아 생산에 있어 어려움은 없다는 관리부 손동석 과장은 "압출부에서는 PE필름과 공압출 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쇄부는 8도 그라비어인쇄기를 이용해 합성수지필름, 나일론, OPP, 셀로판 등으로 그라비어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PAPER, AL-FOIL 등 롤상태의 모든 기재에 그라비어인쇄를 하고 있으며 합지부에서는 인쇄부에서 생산한 그라비어 인쇄물을 다른 소재 즉 PE필름, AL-FOIL 기타 필름등과 합지하고 있으며 가공부는 생산3과에서 작업된 소재를 파우치에 주입하여 합지된 소재를 자동 롤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원산업은 지난 해 10월부터 그간 꾸준히 준비해온 결실로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ISO 9002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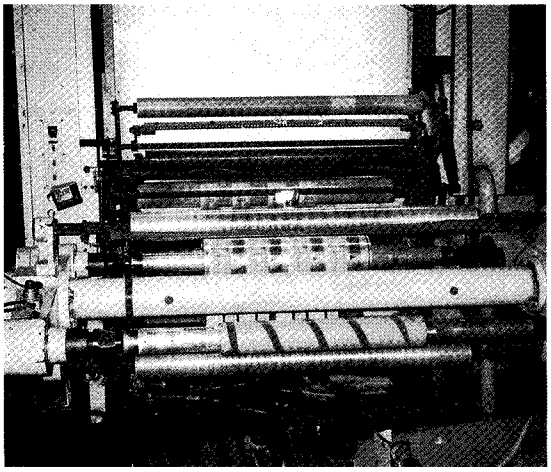
이번에 ISO인증을 획득하게 된 목적으로 직원들의 정신무장, 경각심 부여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손 과장은 무역이나 거래에 있어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기대효과보다는 그간 오랜동안 생산해온 자사의 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전체 생산의 90%이상이 내수로, 10%정도를 수출로 공급하고 있는 대원산업은 이번 인증획득과 함께 생산과정중 구두로만 이루어지던 일의 진행방식이 문서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에 있어 이점 있을 뿐만아니라 불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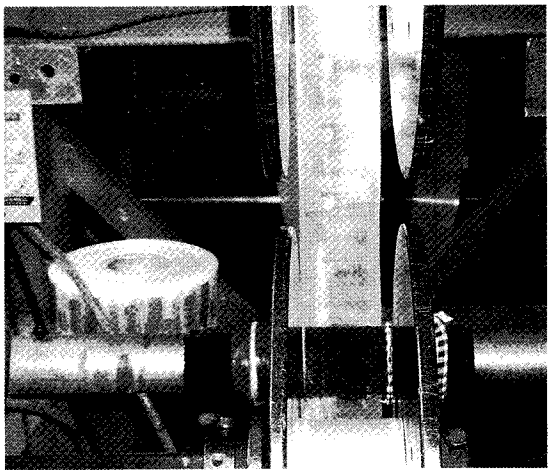
이번 ISO진행과 함께 생산직 직원들이 생소함을 느끼고 다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끝까지 노력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고 밝히는 박종현 대표이사는 향후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확실한 조직정비에 주력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원산업은

▲ 대원산업(주)는 최근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



▲ 대원산업(주) 8도 그라비어 인쇄기



▲ 지로팩 전용생산 라인

장기근속자가 많은 것을 자랑으로 꼽았다.

업종의 특성상 한 곳에서 오랜동안 근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직원들이 일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박기붕 회장의 직원들에게 일하고 싶은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경영방침 때문이었으리라 짐작했다. 또한 박 회장은 '합리적인 계획과 성실한 자세로 책임을 완수하자' 라는 사훈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을 강조해 왔다.

한편 새로운 경영인으로 취임한 박종현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과 함께 입사, 그간 대원산업 발전과정을 함께 걸어온 장본인으로 새로운 경영자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 또한 크다.

직원체육대회, 사내 노래방기기 설치, 야유회 등을 통해 직원들간의 화합을 위해서도 남다른 노력을 기하고 있는 대원산업은 좋은 제품생산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화합이 중요함을 시종일관 강조했다.

대원산업은 현재 늘어나는 물량을 충족시키기에는 지금의 공장이 협소함을 느끼고 곧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된다는 경영자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국내 주요은행들에 대해 '불안정' 에서 '안정' 으로 평가를 상향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벤처기업들의 설립이 연일 늘고 있다는 소식들은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해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뒷받침되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ko

이선하 기자